

화해, 일치, 봉사

-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적 삶

“저는 그들을 위해서만 청하지 않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청합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저 또한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 또한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파견하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저를 파견하신 사실과 또한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사실을 세상이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원하옵건대 제가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그들 또한 저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세상 창조 이전부터 저를 사랑하셨기에 제게 주신 저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여 주소서.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들 또한 아버지께서 저를 파견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 주었고 (앞으로도) 알려 줄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저 또한 그들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요한 17,20-26).

화해를 이루는 이

사제로서의 나의 삶에 가장 매력적인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해성사나 영적지도 혹은 피정지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접하는 사도직일 것이다. 삶의 고민스러운 아픔을 상대하며 그 안에 가려진 의미와 희망을 되찾기 위해 애쓰는 마음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노라면, 내 마음은 늘 그 마음의 아픈 비밀을 들려 주시는 이들을 향해 한없는 고마움과 사랑으로 가득 찬다. 그러면서 사제직의 고귀한 소명을 내게 은혜로이 베풀어 주신 하느님과 교회에 고마움으로 가득 차 머리 숙여 겸손되이 감사드린다. 그것은 내게, 아픈 이들의 마음 속에 말 없이 함께 계시며, 애쓰는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감지하는 순간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눔과 개방의 현장이 나에겐 특별히 하느님을 만나 뵈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아픔을 가져다 주는 여러 요소들을 자비어린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 안에 용서와 화해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신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사제직의 중요한 한 몫이다.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 삶의 여러 그늘진 구석에 하느님 사랑의 빛이 깃들여 화해와 일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 주님께서는 분명히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는 근심에 잠길지라도 그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공동번역 요한

16.20)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새롭다. 사제로서의 직무는 분명히 주님을 본받아 화해를 이루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늘 사제로서의 나의 직무를 '화해를 이루는 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 왔고, 그래서인지 특별히 고해 성사에 참여하는 시간들만큼 내가 사제임을 확인시켜 주고 그 의미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게 해주는 때가 없는 듯하다.

로마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나는 한 여름을 루르드 성지에서 고해성사 신부로 일한 경험이 있다. 한 달 간을 하루에 네 다섯 시간씩 고해실에 앉아 성지순례를 온 영어권의 신자들에게 고해성사를 준 체험은 나에게서는 사제로서 더없이 귀한 체험이었다. 루르드 성지는 특별히 성모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다.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통하여 베푸시는 은혜에 압도되어 일어나는 회심은 죄인의 마음 속에 새로운 희망을 불러 일으키며, 그 안에서 소명의식이 짝트게 한다. 회심의 체험은 곧 소명 체험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용서와 화해의 신비이다. 짓눌려 있는 마음 속의 가장 순수하고도 청순한 소망이 화해의 기운과 더불어 되살아나는 체험 속에서 하느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화해를 이루는 사도로 부르신다.

화해의 측면에서 본 성체성사

이러한 체험은 나로 하여금 성체성사를 화해의 측면에서 새롭게 이해하도록 이끌어 주기도 했다. 성체성사에 대한 사도적 전승의 요소는 복음서마다 서로 조금씩 다르다. 우선 공

관복음에서는 최후의 만찬 예식이 과월절날 행해진다. 루가 복음이 전하는 최후의 만찬 장면(루가 22,14-23)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나누어 마신 다음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시고 다시 포도주가 담긴 잔을 나누어 주신다. 그런 직후 유다의 배반이 예고된다. 마태오복음(26,17-29)과 마르코복음(14,12-25)에서는 유다의 배반 예고가 먼저 나오고 이어서 빵을 나누어 주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다. 하지만 요한복음이 전하는 최후의 만찬 장면은 사뭇 다르다. 요한복음(13,1-30)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는 날이 과월절 전날이며, 이 장면에서 빵과 포도주가 성체성사의 양식으로 나뉘어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요한복음에서는 세족예식이 행해지며,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신 후 유다의 배반이 예고된다. 사도 성 바울로께서 고린토 전서에 묘사하시는 만찬 장면(1고린 11,17-34)은 이미 전례화된 양식으로서 교회의 선포 내용을 담고 있다. 사도께서는 고린토 교회 안에 발생한 여러 분열과 당파에 대하여 꾸짖으시며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만찬을 용서와 화해를 통한 일치의 표본으로 보여 주신다.

이렇듯 성서에 전해지는 최후의 만찬 장면들에는 배반이나 당파 혹은 분열된 현실적 공동체의 모습이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성체성사가 지니고 있는 화해를 향한 요청이 더욱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남을 다스리고 남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불러오는 분열에 대하여, 함께 음식을 나누며 서로 섬기는 마음이 가져오는 화해와 일치를 제시하기 위하여 교회는 성체성사를 선포

하고 있다. 즉 성체성사 안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형제 자매로서 화해를 이루는 일에 투신하도록 요구하는 소명이 담겨 있는 것이다.

누가 제일 높으냐?

성서는 주님과 함께 나누는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이 자기들 가운데 누구를 제일 높게 볼 것이냐는 문제로 옥신각신하였다고 전한다(루가 22,24). 제자들 사이에 벌어진 이러한 암투를 배경에 두면 결국 베드로 사도께서 보여 주신 열정은 당신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다는 단언으로도 볼 수 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가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공동번역 루가 22,33). 때로 우리도 역시 자신이 가장 하느님을 깊이 사랑한다는 영적 자만에 빠져 주변 이웃들에게 영적으로 군림하려 드는 속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분위기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묵묵히 씻어 주신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제공해 준다. “주요 또 선생인 내가 여러분의 발을 씻었다면 여러분도 마땅히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 준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행한 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요한 13,14-15).

여기에서 우리에게 제기되는 질문이 하나 있다. 과연 무엇이 우리를 하나로 일치시켜 줄 수 있는 것일까? 서로가 해야 할 일과 직무를 분명히 하고, 그 사이에 정해지는 일정한 서

열과 올바른 질서가 자연적으로 일치를 가져오는 것일까? 아니면 서로 섬기고 아껴 주는 마음이 우리를 서로 한 공동체로 일치시켜 주는 것일까? 위로부터 이루어지는 일치가 있는가 하면, 아래로부터 이루어지는 일치가 있다. 분명히 한 가정의 가장이나 어른이 보여 주는 권위가 일치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귀여운 아기의 현존이 한 가정의 모든 분위기를 일치로 이끌어 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보여 주시는 일치는 질서나 일 분담 혹은 권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치가 아니라,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에 근거를 둔 겸손한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치, 즉 화해를 바탕으로 하는 일치일 것이다.

배반 예언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최후의 만찬 자리에는 그분을 배반할 유다도 분명히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심령이 산란하여 비장하게 말씀하셨다. ‘진실히 진실히 여러분에게 이르거니와, 여러분 중의 한 사람이 나를 넘겨 줄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쳐다보았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의 품에 기대듯 자리잡고 있었는데 그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이였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눈짓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캐묻게 하였다. 그러자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기대며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여쭙었

다”(요한 13.21-25).

우리는 많은 경우 자신의 죄스러움보다는 타인의 죄스러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자신의 배반보다는 타인의 배반에 더 호기심을 보인다. 우리 가운데 있는 '유다의 현존'을 자신보다는 타인에게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어찌면 우리의 본성인지도 모른다. '유다의 현존'에 대한 관심이 '나' 일 때 그것은 분명히 구원과 화해를 가져오는 체험일 것이며, 그 관심이 '너'에게 쏠려 있을 때는 단죄를 가져와 결국 분열을 일으킬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빵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현존이 '나' 안의 유다를 일깨워 줄 때, 그것은 구원이며 화해를 불러일으키지만, 빵을 나누시는 그리스도의 똑같은 현존이 '너' 안의 유다를 일깨워 준다면, 그것은 분명히 단죄이고 우리 사이를 끝없이 분열로 이끌어 갈 것이다.



일치의 기도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더욱 극진히 사랑해 주셨다(요한 13.1 참고). 함께 만찬을 나누시는 주님의 극진한 사랑의 행위를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바치시는 기도의 형식(요한 17.1-26)으로 마무리하는데, 이 기도를 '대사제의 기도'라 부른다. 이 기도는 일치를 구하는 기도이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 말씀이 담겨 있는 기도이기도 하다.

이 기도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담겨 있는 참다운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한 근본 갈망이 어떻게 채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영원한 생명이란 오직 한 분의 참된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또한 아버지께서 파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요한 17.3). 참된 것과 영원한 것은 하나이다. 우리 안에 있는 갈망, 즉 참답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갈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의 절대적 가치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삶을 통해서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하느님과 일치시키셨다. 사랑은 분명히 갈라진 것들을 함께 모아 일치를 이룬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공동번역 요한 17.22) 하고 기도하신다. 하나됨은 서로 사랑함을 의미하고, 하느님을 마음으로부터 깊이 아는 것이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

로 영원한 삶이라고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다.

진리는 투신을 부른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공동번역 요한 17,17) 하고 기도하신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기도이기에 ‘대사제의 기도’는 바로 우리 가운데 화해를 불러오는 기도이기도 하다.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성찬례의 의미를 살고 증거하는 공동체이어야 하고 서로 친교를 나누며 화해를 도모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 성체성사에서 쪼개어져 나뉘어 먹히는 빵의 모습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현존을 온전히 드러내신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탁에) 자리잡으시자 빵을 드시고 찬양하신 다음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리어 예수를 알아보았다”(루가 24,30-31).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화해를 위해 자신을 나누고 쪼개는 모습 속에 깊이 현존해 계신다. 성체성사의 언어는 바로 화해의 언어이며 희망의 언어로서 우리에게 복음의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묵상 성구

요한 17,1-26 거룩하신 아버지,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시어, 우리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마태 26,17-30

받아 먹으시오. 이는 내 몸입니다.

루가 22,7-38

이것을 받아 서로 나누어 마시시오.

요한 13,1-17

해방절 축제 전날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야 할 당신의 시간이 온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해 오신 그분은 이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루가 22,24-38

여러분 가운데서 제일 큰 사람은 제일 어린 사람처럼 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합니다.

1고린 11,17-34

나는 주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성찰

1. 나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용서와 화해를 통해 일치를 이루는 일에 얼마나 정성을 드립니까? 우리 주위에 화해와 용서를 필요로 하는 일에 얼마나 시간과 정성을 들여 헌신합니까?
2. 내가 속한 공동체, 혹은 교회의 신심단체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치를 경험하십니까? 어떤 요소들이 일치를 가져오는 요소들이고, 또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이러한 일치가 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뇌하는 인간상

그리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오” 하고 이르셨다. 그러고서는 그들과 떨어져 돌을 던지면 땅을 만한 거리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복돋우어 드렸다. 그러나 그분은 고뇌에 싸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와 보시니 그들은 근심하다 지쳐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왜 여러분은 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시오” 하고 말씀하셨다(루가 22,39-46).

진리가 겪는 아픔

사랑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주시며 하느님과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신 예수께서는 왜 고통스러운 수난과 죽음을 겪으셔야만 했을까? 사랑에 투신하는 모든 삶의 양태는 결국 그러한 처절한 아픔 앞에서 무자비하게 짓밟혀 무참하게 끝장나버려야만 하는 것일까? '진리는 진리이기에 겪어야 하는 아픔이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 자체 안에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랑과 진실일까? 사실 진리는 의심받을 때 오히려 더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는 듯하다. 거기에서 진리는 인내함과 꾸준함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 일상적 경험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진리가 겪는 아픔'이라는 상징 속에는 그래서 희망의 기운이 깃들여 있다. 진리란 완성되고 도달된 그 어떤 상태가 아니라 늘 앞을 바라는 희망의 모습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되새겨본다. 구약성서의 한 시인은 다음과 같이 절규한다: "‘권세있는 자들의 손아귀에서 약한 사람을, 수탈하는 자들에게서 가난한 이를 구하시는 분, 야훼여, 당신 같으신 분 또 어디 있사오리까!’ 이는 뱃속에서 나오는 나의 고백입니다”(시편 35,10).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비록 정의롭지 못한 것 같은 주변을 향해 울부짖지만, 그 아픔 어린 절규 속에는 하느님을 향한 애절한 신

뢰가 담겨 있다. 못 건디게 아파하는 인간의 고뇌 속에서 희망이 움터날 조짐이 엿보인다.

게세마니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체험

루가복음에서는 게세마니 동산에서 고통 중에 울부짖는 예수님의 절규가 “그분은 고뇌에 싸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22,44)고 묘사된다.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밀려오는 공포와 번민을 겪으시는 예수,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견디어내시는 예수님 곁에 근심에 지쳐 잠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이 오히려 그분이 겪으시는 외로움의 정도를 더해 준다. 거대한 해일이 되어 밀려오는 슬픔 속에 어렴풋이 엿보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처절한 순간들을 성공적으로 견디어내어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성취해낼 수 있겠다는 확신도 없다. 아무런 용기와 힘도 없다. 마태오복음의 유혹 장면에서 “물러가라, 사탄아! ‘너의 하느님이신 주님에게 엎드려 절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고 기록되어 있다”(마태 4,10) 하시며 세 번째 유혹을 물리치시는 단호하고 용기에 찬 모습은 여기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아버지께 매달리는 처절하고도 간절한 마음뿐이다.

예수께서는 처절한 절망 속에서 안간힘을 다하시며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루가 22.42) 하시며 기도하셨다. 또 다른 복음에서 예수께서는 괴로워 죽을 것만 같은 근심과 번민 속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건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공동번역 요한 12.27) 하시며 기도하셨다고 한다.

주님의 가까운 벗들인 제자들도 극도로 고통 중에 계신 예수님의 외로움에 동참하지 못했다. ‘잠들어 있었다’라고 표현된 거리감, 어쩌면 절실하지 못했기에 무관심처럼 보여진 제자들의 모습은 오히려 우리에게 갈등과 고뇌 속에 있는 한 인간의 마음에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깨

닫게 해준다. 이렇게 지독한 마음의 고통 속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신뢰의 목소리가 울터 나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느님을 '아버지'로 계시해 주셨다. 아니 그 '압바, 아버지'라는 언어에 담긴 친밀성으로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운 분이신가를 일깨워 주셨다. 바로 이러한 친밀하신 하느님께 두는 온전한 신뢰 속에서 희망과 용기가 울터 나온다. "자, 일어나 가자"(공동번역 마태 26.46) 하시며 다가오는 죽음을 향해 걸음을 내걸으신다.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슬픔, 고통과 죽음으로 이끄는 상황을 수용하겠다는 처절한 신뢰와 용기의 소리이다. 하지만 이 신뢰와 용기는 결코 낭만에 찬 그러한 마음가짐은 아니다. 그 안에는 처절한 인간의 고뇌와 아픔이 담겨 있으며,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어 가는 모든 부조리를 온몸으로 받아 안아 감수하겠다는 수용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러한 용기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용기의 원천은 아버지 하느님께 대한 철두철미한 신뢰임이 틀림없다.

예수님의 계시

고뇌의 현장은 거부하느냐 아니면 받아들이냐에 따라 지옥도 되며, 새로운 창조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어찌면 하느님께서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하시는 새 창조의 약속은 바로 이러한 인간 고뇌의 심연을 수용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신비일런지도 모른다. 그 곳은 인간과 하느님이 만

나는 영역으로서 우리가 겪는 고뇌 속에 새로운 희망의 지평을 열어주는 존재의 신비가 담긴 새 창조의 영역일런지도 모른다. 게세마니에서 예수께서 겪으신 고통스럽고 슬픔에 겨운 그러한 비슷한 순간들에 바로 하느님과의 가장 절실한 만남이 이루어진다.

여기 저기 흩어진 기도의 단편들을 주워 모아보면 게세마니에서 주님께서 바치신 기도가 '주님의 기도'였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겠다.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당신의 삶 속에서도 늘 끊임없이 바치셨다. 주님께서서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가르쳐 주시며, 그 안에 담긴 친밀함과 사랑으로 당신이 아버지 하느님과 누리시는 관계를 드러내신다.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을 지어내시고 주름잡으시는 창조주 하느님이라는 구약성서다운 모습이, 새롭게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친밀하신 사랑을 쏟아 주시며 함께 나누고 머무시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계시되고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하셨으며, 아버지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구원의 경륜이 바로 지금의 현실에서 실체로서 이루어지도록 힘쓰셨다. 친밀하신 하느님의 현존이 바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늘 나라이다. 그렇기에 그 안에서 하느님의 새로운 현존양식이 친밀함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우리 현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느님의 뜻이 실체로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구하며, 서로로서의 관계 안에서 용서와 화해를 이루시는 하느님의 현존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일용할 양식을 일깨우신다. 바로 친밀하신 하느님의 현존 안에 세상의 구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원의 구체적인 현존은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 각자의 희생과 과감한 결단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보여주시고 베푸신 사랑에 감동되어 사랑하며 살겠다는 결심은 끊임없이 한계에 부딪치게 되기 때문이다. 사랑하고자 한 우리의 결심이 한계에 부딪칠 때 거기에 바로 우리의 가난함이 있다.

우리의 가난함

아무도 예수님의 수난에 온전히 동참할 수는 없다. 그 누구도 수난 중의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도울 수 없다. 그저 그들은 침묵 중에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과 슬픔을 지켜보며 그 옆에 묵묵히 현존해 있었을 뿐이다. 이것이 우리의 가난함이다. 아니 예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가난함 안에 들어와 먼저 서 계신다. 당신을 그 누구보다도 더 절실히 사랑하기에 죽기까지 당신을 섬기고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고 목숨을 걸고 맹세한 베드로 사도께서는 어쩌면 아주 작은 것이라고 넘겨버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정도의 배반, 아니 그토록 사랑한 이에 대해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오!' 하고 당황하며 부인하는 순간에도 그것이 자신의 가슴 속에 그토록 가난하고 처참한 처지를 만들어낼 줄은 짐작도 못했을 것이다.

루가복음이 말하듯이 “그 때에 주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다. 그제야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공동번역 루가 22,61-62). 수난당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이와 같은 한 가난한 제자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네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거든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 다오”(공동번역 루가 22,32) 하신 주님의 말씀이 어찌면 더 우리를 아프게 할지 모른다. 가난하고 보잘것 없고 용기 없어 부서지기 쉬운 제자의 마음에 그분께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희망을 심어 넣어 주셨던 것이다. 나의 부족과 가난함에만 관심을 두고 슬퍼하고 가슴 아파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아닐 것이다. 당신이 당하시는 고통과 아픔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먼저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죄스러움과 가난함에 먼저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 분이시다. 그분이 먼저 우리의 아픔과 고통 속에, 우리의 가난한 마음에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신다. 그런 침묵 속의 현존이야말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현존이며 희망을 창출해내는 현존이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2,24) 하신 말씀처럼 당신이 바로 우리 마음의 가난하고 어두운 죄스러운 곳에 떨어져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시며 죽으시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희망을 새롭게 일구어내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의 순종과 우리의 응답

예수께서는 당신의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순종하셨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의 언어 속에는 완전한 순명을 통한 일치라는 뜻이 담겨 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예수님의 온전한 순명을 통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기에 예수께서 하느님과 완전히 일치하시는 것이다. 온전한 순명이야말로 진정하고도 완전한 자유이며, 우리가 주님과 일치하고 하느님과 일치한다고 할 때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결단이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의도하시는 구원계획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아니 주님께서 보여 주신 사랑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니고 이에 따라 만나게 되는 상황들 속에서 올바른 결정과 투신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주님과 일치를 이루는 삶일 것이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낭만적인 삶일 수만은 없다. 우리가 주님께 마땅히 보여 드리는 온전한 순명은 끊임없는 자기 희생과 극기를 요구한다. 사랑에 헌신하는 삶은 진실이 담겨 있는 그만큼 고통을 불러오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때에는 주님을 섬기고 따르겠다는 우리의 결심은 그저 낭만적인 꿈에 지나지 않을런지도 모른다. 주님을 애써 따르겠다는 사랑의 투신은 자기 희생과 고통, 그래서 자기 극복을 한없이 요구하기 때문이다.

묵상 성구

- 루가 22,39-46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 요한 12,23-33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 마태 26,31-46 진실히 당신에게 이르거니와, 이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당신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 시편 35 권세있는 자들의 손아귀에서 약한 사람을, 수탈하는 자들에게서 가난한 이를 구하시는 분, 야훼여, 당신 같으신 분 또 어디 있사오리까!
- 시편 55 내 마음 찢어지듯 괴롭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덮칩니다.
- 루가 22,47-53 이제는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어둠이 권세를 부립니다.

성찰

1.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살겠다는 나의 결심과 투신에 의문을 제기하고 흔들리게 하는 어려움들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나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상대하고 극복합니까?

2. 나의 삶에서 수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고뇌와 아픔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수난과 고통은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요구합니까?